

더불어 함께하는 충남 홍성 양돈사랑 협업농장

취재 : 안 혜 성

양돈사랑의 협업농장 시스템

양 돈산업에서 종돈-번식-비육-사료-약품-시설-출하-도축-육가공-도·소매까지의 각각의 부가가치 사슬이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포크체인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중에는 계열화(integration), 출하계약(marketing contracts), 병합(consolidation), 조합(cooperation), 네트워킹(networking), 동맹(alliances) 등의 종류가 있다.

양돈사랑은 이중 네트워킹에 속하는데 네트워킹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이 협력하여 혼자서는 어려운 개인 또는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양돈분야에 대한 네트워킹의 형태로는 정보네트워킹, 마케팅 네트워킹, 생산네트워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양돈 사랑은 생산네트워킹에 속하고 생산네트워킹은 정식으로 조직되는 집단으로서 모돈을 협동조합형태로 공동 생산할 수 있고(sow-coops), 후보모돈을 번식(giltmulifiler) 한

다거나 자돈을 집단으로 육성(congregate nursery)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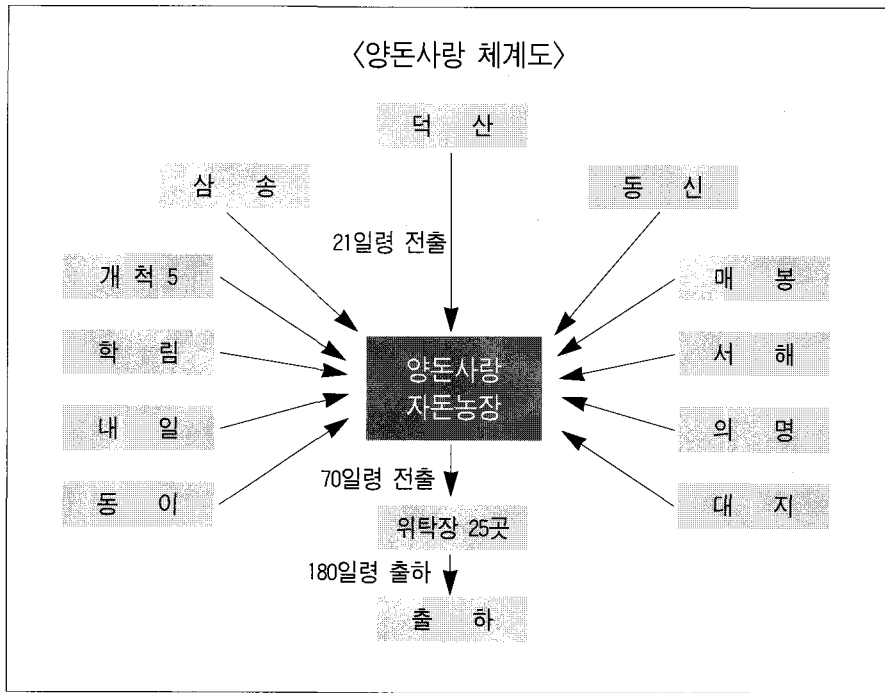
충남 홍성 지역의 양돈사랑 영농법인은 생산자들이 뭉쳐 자돈사를 공동 운영하여 다시 위탁하는 것은 생산 네트워킹의 대표적인 예이다.

생산네트워킹은 전문인력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며 가입자는 자연스럽게 혜택을 보게 되고, 3-싸이트 사육이나 all-in-all-out 등의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생산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네트워킹을 시작할 때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며 존립기간 동안 장기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장단점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모든 회원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장기계약이나 소유권 등에 의해 얽매이지 않은 경우 대규모 양돈장이 추가적인 혜택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1998년 Lawlence 등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들이 위탁사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작아 자돈을 맡길 위탁농장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all-in-all-out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없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위탁하는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위탁 교섭은 물론 사양 지도·점검도

50,000두 이하 출하하는 농장 중 약 14%가 참여하고 있고, 연간 출하두수 중에서 약 17%가 돼지출하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다.

또 약 10%의 농장은 원재료 구입, 돼지생산 및 정보에 관한 네트워크에 관여하고 있다.

최소 미국 전체의 약 10% 정도의 생산이 네트워크에 의해 생산되고 주로 중규모의 농장이 가입되어 있다. 중규모 농장의 대부분이 생산과 출하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양돈사랑 연혁

충남 홍성 소재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은 자돈 생산 농장들이 모여서 만든 영농조합법인이다.

지난 2000년 8월, 6개 농가가 공동 출자해 설립했으며 현재는 학림 농장, 매봉 농장, 개척5 농장, 동신 농장, 덕산 농장, 의명 농장, 삼송농장, 서해 농장, 동이 농장, 대지 농장, 내일 농장 등 총 11개 농장이 참여하고 있다.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이 출범하게 된 동기는 이러하다. 홍성지역의 자돈을 생산하는 양돈농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양돈사랑 현황

현재 양돈사랑 영농조합법



▲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 오영남 대표이사



양돈사랑에 참여하는 11개 농장들은 임신, 분만, 이유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유 후, 자돈의 육성과 비육은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에서 맡아 한다.

인에는 총 11개 농가(총 모돈 수 3,500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돈사랑은 법인 소유의 12,000두 규모의 자돈 농장을 가지고 있다.

자돈농장은 제1농장과 제2농장으로 구분된다.

제1농장은 충남 홍성 홍북면에 3개동(7,000여두 사육 규모), 건평 1,000평이고, 제2농장은 충남 홍성 홍동면에 2개동(5,000여두 사육 규모), 건평 700평이다. 또한 앞으로 제2농장 옆에 돈사를 추가로 증축할 예정이다.

한편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은 TGE, PED 등 질병 발생과 지체 이상, 헤르니아 등으로 위탁사육농장으로 전출시킬 수 없는 자돈을 격리사육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자돈농장에서 사육한 돼지는 70일령에 총 25개 위탁장으로 전출되고 있다. 양돈사랑은 월 6천두를 공동 출하하고 있다. 양돈사랑은 도드람양돈조합, (주)농장사람들, (주)정우 등으로 전국시세로

출하하고 있다.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은 오영남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8명이다. 총무·관리에 2명, 생산부에 4명, 위탁·판매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양돈사랑 운영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은 11개 자돈 생산농장에서 21일령에 양돈사랑의 자돈 농장으로 돼지를 전출시킨 후, 자돈농장에서 70일령까지 사육 후, 25개 위탁장으로 위탁사육을 보낸다.

그후 180일령(115kg 수준)

에 출하하는 협업농장 형태와 일부 수직 계열화 형태를 취한 시스템이다.

■ 사료, 종돈, 사양관리 통일(고급육 생산 체계 확립)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돼지는 사료, 종돈, 사양관리가 통일되어 있다. 사료는 도드람양돈농협의 OEM 사료를 급여하고, 종돈은 다비육종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11개 농장의 사양관리 통일을 위해, 백신 접종 프로



▲ 양돈사랑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램을 동일하게 짜고 동물약품을 공동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11개 자돈농장과 25개 위탁장의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번식전문 경영 모델 수립, 고급육 생산체계 확립

결론적으로 양돈사랑에 참여하는 11개 농장들은 임신, 분만, 이유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유 후, 자돈의 육성과 비육은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에서 맡아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참여농가는 임신, 분만, 이유에만 전문적으로 매달릴 수 있게 되어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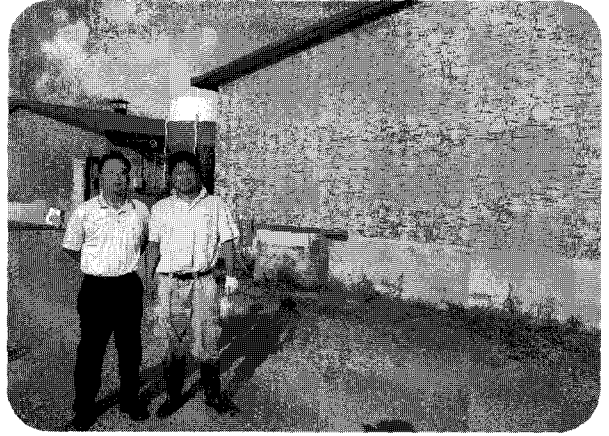
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뇨처리와 시설비 부담 등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분만사의 올

인올아웃이 가능하게 되고 자돈사도 올인올아웃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Batch별 1주 이상을 비우고 있다.

양돈사랑은 사료, 종돈, 사양관리(백신 프로그램) 통일하고 단계별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 위생적인 사양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 제2 자돈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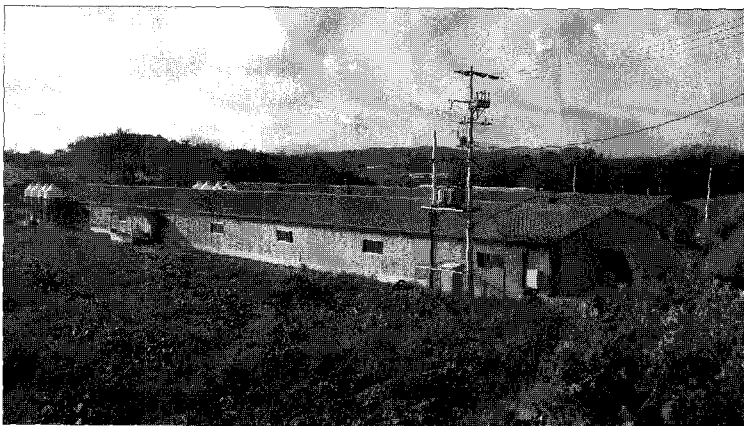
향후 계획

양돈사랑의 현재 규모는 모돈 3,500두 규모에서 모돈 5천두 규모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돈사랑은 제2 자돈농장의 자돈사 증축도 준비 중에 있다.

양돈 계열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이 충족해야 할 것은 육가공장과 연계한 브랜드 돈육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 유통, 가공 계열화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돈사랑은 이와 같은 양돈장 협업농장이 흥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출범해서 WTO 체제하에서 양돈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전문화, 규모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양돈**



▲ 제2 자돈농장 전경.